오해

(마2:1~23)

1.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2.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3.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4.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5.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6.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7.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8.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11.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12.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오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오해.

여러분, 우리가 즐겨 듣기도 하고 보기도하는 고전작품 중에 '오해'라고 하는 주제가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두 작품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유명한 것 중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에 하나인 오셀로와 또 실존주의 철학자이자 문학가인 프랑스의 알베르 카뮈의 '오해'라고 하는 희곡을 생각해 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오셀로'라고 하는 작품은 오셀로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탈리아에 있는 흑인 장군인데 이 사람이 자기아내 데스데모나를 오해해서 목 졸라 죽이게 됩니다, 비극이지요.
그리고 정말 순결하고 정숙했던 자기 아내 데스데모나의 실상을 뒤늦게 깨달은 다음에 그만 자책을 못 이겨서 자살하게 됩니다.
이 오해였죠, 마부 이아고의 이간질에 넘어가서 부관 카시오와 아내 데스데모나가 서로 연분이 난 것으로 오해해서 죽이게 되고 자기도 자살합니다.

이 구조가 비슷해요, 그 알베르 카뮈의 '오해'라고 하는 작품도.
체코의 한 깊은 산속에 마르타라고 하는 한 처녀가 어머니와 둘이 살면서 여관을 경영합니다.
이 두 모녀에게는 꿈이 있어요.
바다와 태양을 그리기를 좋아하는 이 마르타가 남쪽으로 가서, 남쪽이면 지중해 연안이겠지요? 지중해 연안에 가서 그 아름다운 바다와 태양을 그리기를 원해 이사하는 것이 이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이사하는 꿈과 함께 참으로 강렬한 기대가 이들은 있어요.
뭐냐 하면, 20년 전에 집을 나간 오빠를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기대와 꿈에 힘입어서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사는 이들이, 돈을 모으기 위해서 참으로 악의에 찬 계획을 세웁니다.
여관에 들어오는 투숙객 중에서 부유해 보이는 손님들에게 수면제를 먹여서 금품을 갈취하고 그들을 강물에 버려서 죽입니다.
어느 날, 참으로 부유하게 보이는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보니까 성공해서 귀향길에 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여지없이 수면제를 먹이고 금품을 갈취하고 강물에 던져 죽입니다.
금품을 정리하는 중에 그의 신분을 알아내게 되고 그가 바로 20년 동안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아들이고 오빠라는 사실을 알고, 이 두 모녀가 자살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셰익스피어의 '오셀로'의 오해에, 알베르 카뮈는 인간의 부조리를 그리기 위해서 기대감이라고

하는 강렬한 열망을 하나 더 추가해 놓았습니다.
강렬하게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이 부조리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알베르 카뮈가.
이 실존주의 작가 아닙니까?
부조리가 그 사상의 핵심 속에 들어있어요.
행복을 기대합니다, 행복을 열망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행복할 수 없는 이유를 내 속에 담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인간이 실존적으로 처해있는 부조리의 상황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부자 되기를 원합니까?
그런데 전혀 부자 될 수 없게 하는 요인이 내 속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동방박사라는 말만 들어도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 때 교회와 가정에서 늘 접하던 그 아름다운 정취가 물씬 풍겨 나는 것 같아요, 연극도 해 봤고 그렇죠? 동방박사.
이 동방박사 이야기 속에, 우리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점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점이 이상하냐?
동방박사는 알려진 대로 천문학자들입니다.
그 옛날로 말하면 점성가들입니다, 점성가.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천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천체의 움직임에서 이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의 의미를 찾는 자들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점성학이 시작되었다고 하면, 바벨론에 나라가 있던 지역에서 점성가들로 살던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 이들이 이역만리를 찾아와서 누가복음에 의하면 마구간 구유에 뉘이신 예수그리스도 메시아에게 경배를 하게 되는 최초의 인간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그냥 아름답게만 보여 질 수 가 없는 이유는, 오늘 그 동방박사가 바벨론이 있던 지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찾아와 가지고 유대의 왕을 찾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온 예루살렘이 다 발칵 뒤집혀집니다.
헤롯왕, 그 당시의 왕이었던 헤롯도 기절초풍을 하게 됩니다, 유대의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리고 실제로 유대의 왕이신 메시아 그리스도께 가서 경배한 자들은 이 동방박사 밖에 없습니다.
이 점이 이상하다는 것이에요.
헤롯왕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과 모든 서기관들을 다 불러서 유대 왕에 대해 묻습니다. '어디서 태어나느냐?'
그때 미가서 5장1절 2절에 기록되어있는 예언서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구약성경의 율법과 예언에 통달한 자들입니다, 도통한 자들입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다 메시아를 향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그래서 중간기, 말라기서가 430년에 쓰여 지고 그 다음에 성경이 다시 쓰여 지지 않지 않습니까?
이 430년 기간 동안에 식민지하에서 살면서 지금은 로마의 식민지하에서 너무너무 강렬하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같은 뜻의 말이 헬라어에서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진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무도 그 메시아를 맞이하게 되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알베르 카뮈가 그린 그 '오해'라고 하는 희곡 속에서 20년 동안 기다리던 그 아들을 어머니 손으로 죽여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430년 중간기를 거치며 강렬하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아무도 찾아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헤롯왕으로 상징되어지는 학대와 적대가 메시아에게 가해지고 참 메시아를 맞이할 아무런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마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쓴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동방박사가 왔다든지 하는 모든 이런 이야기들은 마리아가 요셉이 기억하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마태가 이 이야기를, 이러한 자료들을 갖고 와서 이 마태복음을 쓸 때는, 이미 마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뒤입니다.
십자가로 그의 생애가 끝나는 메시아, 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쓸 때에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끌어 당겼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동방박사 이야기를 끌어당겨서 쓰게 된 이유가 뭡니까?
십자가로 생애가 끝나는 그 그리스도를 그 메시아를 도대체 이 땅에 누가 그 메시아가 아기로 태어났을 때, 그 분을 메시아로 알고 맞이하며 경배할 수 있었을까 하는 참담한 심정을 가지고 쓰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를 메시아로 맞아들일 것인가?
십자가를 경험하고 쓰는 것이에요, 지금.

자, 여러분 그러면 왜 이역만리 떨어진 이방인 동방박사들은 예수님, 아기 예수께 와서 그가 유대인의 왕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경배하고 있는데,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1500년 동안 기록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1500년의 모든 이야기가 메시아를 향해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곳곳에 숨어있는 메시아 도래의 예언을 아주 딸딸 외우고 있는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왜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했을까요?
성령의 감동으로 마태가 보여주려고 하는 게 그 이유를 드러내는 거예요.
왜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하는 줄 아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그리스도 신앙에 허허실실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멍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신앙에 구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이방인이고 이역만리 떨어진 타지에서 살고 있던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의 출생을 알려주시고, 그 먼 곳을 불원천리하고 와서 아기예수께 경배하도록 인도하신 이유는, 이들은 하루 종일 오직 하늘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늘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천국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동방박사들은 이 땅의 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늘을 관측하는 자들이고 하루 종일 마음이 하늘에 가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음이 하늘에 가있는 자들이라야만, 메시아를 메시아로서 맞이할 수 있고 메시아를 정면으로

맞닥뜨려서 그 분께 경배드릴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마태복음은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떤 자들이냐?
메시아를 강렬하게 기대했습니다. 동방박사는 비교도 안될 만큼…
동방박사가 메시아를 기대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메시아라는 인격을 기대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하늘을 관측한 것이지.
땅에서 마음이 떠나있던 자들인 것뿐이지요.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메시아라는 인격을 기대합니다.
그 기대에 성격과 내용과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대해서 메시아를 기대한 것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식민지로부터 독립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다윗시대의 태평성대를 이 땅에 팔레스틴 땅에 이루어 줄 거라고 믿었고 그들의 마음의 시선은 땅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땅에 집중되어서 이 땅을 해결해 줄 것으로 열망하면서 메시아를 기대했고 그리고 진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갈기갈기 찢어 죽입니다.

아! 여러분, 20년 동안 집을 나간 아들을, 오빠를 기다리던 마르타와 그의 어머니가 성공해서 돌아온 오빠와 아들을 죽여서 강물에 버리듯이 1500년 동안 예언되고 500년 동안 강렬하게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이들은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어서 죽여 버리고 맙니다.
왜? 땅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통해서 땅을 해결하려 했기 때문에 메시아를 못 받아들이고, 메시아를 밀쳐버리고, 메시아를 죽여 버리고 맙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허허실실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기다립니다, 고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런데 그리스도의 역사가 내 땅의 현실을 해결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죽이고 그리스도와 적대관계에 서게 됩니다, 헤롯왕처럼.

왜 헤롯왕이 메시아를 죽이려 합니까?
모든 왕들은 메시아를 죽이려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제사장도 서기관도 다 왕이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왕이라는 얘기입니까? 내 땅에서의

내 삶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해답을 내린다는 점에서 내가 왕인 자들이에요, 다 내가 왕인 자들입니다.
돈 문제, '이 상황은 돈이 있어야 해결된다'라는 답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왕입니다, 왕이에요.
이렇게 왕이면서 그리스도를 찾고 있는 동안, 오신 그리스도를 죽이는 입장에 설 수 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기다리던 오빠를 죽일 수밖에 없는 마르타처럼, 기다리던 그리스도를, 역사하기를 바라는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을 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해결하려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참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들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땅을 해결해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다가 로마시대 때 순교한 초대교회 교인들은, 땅을 해결하는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순교는 땅을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땅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 땅으로부터 나를 끄집어내시려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마음이 벗어나서 하늘에 다가 있던 동방박사들이 처음으로 인류최초로 그리스도께 와서 경배를 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왜? 자기들이 관심을 갖고 있던 그 하늘의 주인이시고, 이 땅으로부터 사람들의 마음을 끄집어 올려 하늘로 데려가실 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그 하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동방박사들이 와서 경배를 한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이 땅에서 그들이 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무가치한 것으로, 이 땅을 버리는 것으로, 이 땅을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오신 메시아를 그들은 죽일 수밖에 없었지요.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땅을 내게서 빼앗아 가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지요.
이 땅을 버려버리고 우리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게 하려고 하시기 때문에, 왜~ 중요한 땅, 왜~

사랑스러운 땅, 왜~ 이렇게 좋은 땅을 내 마음에서 빼앗아가 버리려 하느냐?
그래서 죽일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를 들어 돈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돈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돈 문제에 붙잡혀 있는 내 마음을 하늘로 끌고 올라가시는 분이십니다.
돈 문제에 매여서 울고 있던 내가 돈 때문에 웃는 것은 구원이 아니에요.
돈 문제가 있을 때, 돈 문제가 있는 땅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늘로 올라가서 하늘에서 웃는 것이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 이런 추측과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상상력을 발동해 보면, 자 동방박사가 별의 움직임을 따라서 인도를 받아서 예수님께 당도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집이, 본문에 집이라고 되어 있는 곳이 말구유에요, 말구유, 마구간 그 구유에 뉘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의 상식과 가치관을 가지고 한번 그 장면을 추측해 봐요, 상상해 봐요.
동방박사들이 이역만리를 불언천리하고 찾아와서 아기예수 앞에 당도했을 때 그 집이 마구간이고 구유에 뉘인 아기를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이 세상을 구원할 유대인의 왕이라는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마구간의 현실에서 어떻게 왕을 떠올릴 수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어떻게.
그런데 이들이 이 아기예수께 마구간 말똥 마소의 똥 냄새가 나는 이 마구간에 뉘어진 예수께 세상에서 가장귀한 보배들을 바치면서 경배를 드릴 수 있게 된 이유는 뭡니까?

이들은,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땅에서 만들어진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이 땅의 모든 현상을 하늘에서 그 답을 찾았던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현상, 땅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의미를 하늘에서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땅에서 만들어진 기준으로 볼 때 마구간에 뉘인 사람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별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왔기 때문에 마구간의 현실에 태어난 아기가 왕이라는 것을 catch해 내는 겁니다, 잡아내는 거예요.

자, 우리의 현실이 마구간 같아요.
왜 마구간 같은 현실을 주셨을까요?
이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마구간에 준하는 그런 현실을 주셨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그 현실이 아니면 여러분은 그리고 저 자신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맞이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건강도 안 좋고 되는 일 하나도 없는, 세상기준으로 마구간 같은 현실이 천지를 지으시고 섭리하시고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아버지라면서 내게 허락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러지 않으면, 주님을 그리스도로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 아닌지 몰라요.
마르타처럼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에 설 수 밖에 없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지 모르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나사렛사람입니까?
이 나사렛사람이라는 얘기는 구약성경에 그 문자대로 나온 게 아니에요.
나사렛사람이라는 말 자체가 상징적으로 쓰여 져 있습니다.
나사렛은 반 이방지역입니다.
유대 땅에 있지만 반 이방지역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관심과 어떤 가치부여가 전혀 안 되는 땅이고 멸시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사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럽니까?
빌립이 예수께 이끌려서 가려 그럴 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발을 붙일 수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였느냐?
이 세상이 말하는 중요하고 가치 있고 좋다고 하는 모든 것에 마음이 쏠려있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고 아무도 가치를 부여하지 않고 있는 그 장소에서나 메시아는 발을 붙이고 이 땅에서 당신의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내 삶의 현실이 주어진 것은 그 현실이 아니면 그리스도가 나의 삶으로 오실 수 없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이 얘기입니다.
내게 주어진 삶의 의미, 이 현상의 의미 하늘에서 찾아내자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모든 교회가 다 염려합니다.
이때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요 뜻이다'
감옥에 갇혔다는 현실은 세상의 가치로 볼 때 실패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이 땅의 현상을 땅의 사건을 하늘에서 의미를 찾아내듯이 바울도 하늘에서 의미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그리스도와 동행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대하던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죽입니다.
이유는 메시아를 통해서 땅의 문제를 해결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방인이고 구약과 예언에 통달하지 못했고 성경적 지식이 없던 이방인지역의 동방박사들은 인류 최초로 가장 값진 보배를 갖고 와 말구유에 뉘이신 아기예수께 경배를 합니다.
이들이 메시아를 맞이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들의 마음이 이 땅을 떠나 하늘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을 해결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제2 제3의 마르타가 되고 제2 제3의 오셀로가 될 것입니다.
오해 속에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본의 아니게 죽이는 자로서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동방박사, 하늘을 연구한 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음을 기억하고, 아마 바울은 그래서 얘기한 것 같아요.
'위의 것을 찾으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면 이 아래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아랫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을 당신의 뜻대로 주장해 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가실 때, 순교할 수도 있고, 돈이 많이 벌리는 사람으로서 청지기로 살아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살 까지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서른 살에 죽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 땅에서 30살 살겠다, 70살 살겠다, 내 주장을 펼치는 헤롯왕과 같은 위치에 서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부자로 살고 싶다,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 헤롯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왕은 하나님뿐이시고 내 인생의 형상과 형국은 길든 짧든 하나님이 결정하실 것이고 그리스도가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오해를 벗어나는 신앙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해결하겠다는 치명적인 오해로부터 벗어 날수 있게 해 주시고 동방박사처럼 마음이 온통 하늘에 닿아 가있으므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복된 하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